

# 문헌학연구의 航路 제시한 나침반

「韓國文獻學研究」 펴낸 柳鐸一 교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분야를 집요하게 파고든 끝에 이제 비로소 그 연구의 결정체들을 한권의 책에 모아 담은 감회가, 가령 그동안 “일차적 자료에만 맴도는 깊이 없는 학문을 한다”는 냉소를 많이 받았었다고 술회된다면 어떨까? 때로는 “서구에서 들어온 그 참신한 문헌이론으로 산뜻한 논문을 쓰고 싶다”는 유혹을 느낀 적도 있었다고 저자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책일까?

최근 출간된 「韓國文獻學研究」(아세아문화사)의 머리말에서 저자 柳鐸一 교수(54·부산대 도서관장)는 자신의 연구가 갖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陰地 학문’적 고충을 그같이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柳 교수의 한국문헌학 연구 30년의 열정이 단단히 영근 이 책의 상재에 이르면, 오히려 그같은 고충이 연구사적 척박함을 증거하는 구실을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책의 의의와 성가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책 「한국문헌학연구」(국판 562면)는 방대하고 치밀한 실증조사를 통해 비로소 우리 문헌학의 골격을 그 기초에서부터 체계화·이론화시킨 거의 최초의 저술로 평가받고 있다. 종래까지의 이 방면 연구가 대개 어떤 한 주학문에 대한 문헌적 이해라는 개별적, 보조적 성과에 그치고 있었던 데 반해, 이 책은 문헌학을 그 자체로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 ‘인식된 것에 대한 인식’이 곧 문헌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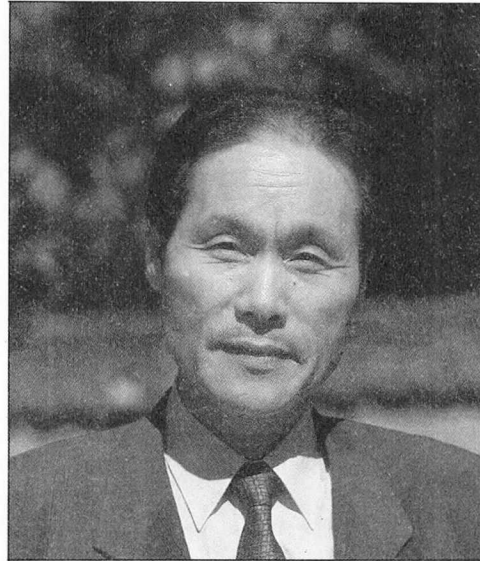
‘文獻’이란 말이 처음으로 쓰인 것은 「論語」로, 이때 ‘文’은 사실서술의 典籍을 의미하며 ‘獻’은 현인들의 논평을 뜻한다는 것이 중국

학자들의 풀이다. 또 ‘문헌’이 책이름으로 등장한 것은 宋末元初의 학자였던 馬瑞臨의 「文獻通考」가 최초로, 이때의 문헌은 문물제도의 총체적 용어로 쓰였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후대로 오면서 차차 그 의미가 기록물 또는 책으로 굳어지게 되면서 문헌학도 기록물 또는 책에 대한 연구로 이해되게 됐다. 그런 점에서 문헌학은 書誌學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柳 교수는 문헌학이 문헌의 내면에 관심이 더 깊다면 서지학은 외면적 물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그 둘을 구별하고 있다.

“인간의 구체적 삶의 표현이 가시적 언어형식으로 영속화되고 고정화된 물증이 곧 문헌이며, 그런 문헌의 제반 측면을 체계화·이론화하는 것이 문헌학입니다. 따라서 문헌학은 ‘인식된 것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만큼 방법론적 학문의 성격을 필연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 방법론적 성격을 여러 측면에서 체계화한 것이 「한국문헌학연구」이다. 모두 32편에 이르는 수록논문의 배열 자체가 ① 本性論的 ② 記寫樣態論的 ③ 배경·유통론적 ④ 변화·전승론적 ⑤ 考覈實證論的 ⑥ 原典비평론적 방법론의 각론에 따라 이루어져 있다. “고전문학을 더 잘 공부하기 위해” 영남일원에 산재해 있던 문헌자료를 섭렵하던 대학 재학 때부터 문헌학연구의 가능한 방법론들을 모색하게 됐다는 柳 교수는 이를 “내 공부의 편력”이라고 표현한다.

“먼저 문자를 담은 자료로서의 문헌 자체가 갖는 근본성질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寫本과 印本, 혹은 인본 중에서도 목판본과 활자본의



柳 교수의 30년 외길연구의 성과가 집성된 이 책은 방대하고 치밀한 실증조사를 통해 우리 문헌학의 골격을 이론화시킨 거의 최초의 저술로 꼽힌다. 종래의 이 방면 연구가 어떤 주학문의 보조적 성과에 머무른 데 반해, 이 책은 문헌학을 그 자체로서 체계화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류탁일교수

서로 다른 성질을 제대로 알지 않고 문헌을 이해한다는 것은 沙上樓閣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은 문헌일지라도 그것이 손으로 베긴 것인지 활자로 찍어낸 것인지에 따라 기술양태의 변화가 제각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 책의 제1장은 그같은 문헌들의 고유한 특성을 밝히는 논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본성론적 접근이죠.”

## 문헌학의 방법론적 성격 규명에 치중

문헌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이어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문헌에 찍어진 문자의 해독으로 柳 교수는 이를 ‘기사양태론’의 개념 속에 아우르고 있다. 특히 대다수 한국문헌의 경우, 漢文의 借字式 표기가 두드러져 표기체계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문자 및

부호, 書式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柳 교수는 제2장에서 일종의 ‘ㅈ’라 할 수 있는 ‘口訣’의 해독원리, 오늘날의 ‘略字’와 비슷한 의미인 ‘俗體半字’의 실례와 종류, 우리 고문헌 특유의 문장부호와 존대 및 겸양의 서식, 그리고 坊刻本고소설의 서체를 중심으로 國文 흘림체의 해독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어서 柳 교수는 목판문헌의 대표적으로 19세기 들어 크게 유행한 방각본고소설을 중심으로 문헌학연구의 배경·유통론적 접근의 실례들을 펼쳐보인다. 그에 의하면 이 배경·유통론적 접근은 “한 문헌의 생성배경과 원류, 유통의 맥락을 문화사적 안목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된다.

“방각본소설은 영리에 민감한 상인들에

漢字를 찾는 방법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圖書 象牙塔  
서울특별시 중구 이화동 211  
TEL. 744-2289, 2959

### 중전의 玉篇과 스피드 玉篇의 비교

부수(번)에 의존하던 舊玉篇	획수만 세면 字를 찾을 수 있는 스피드 玉篇
五……二(部)	五……4 획
六……八(部)	六……4 획
以……人(部)	以……5 획
之……ノ(部)	之……4 획
丑……一(部)	丑……4 획
九……乙(部)	九……2 획
丸……ノ(部)	丸……3 획
也……乙(部)	也……3 획
出……凶(部)	出……5 획
平……ノ(部)	平……5 획
來……人(部)	來……8 획
南……十(部)	南……9 획
幸……干(部)	幸……8 획
巨……工(部)	巨……4 획

## 2,000년 만에 혁신을 시도한 스피드 玉篇

### 스피드 玉篇이란?

- 부수(번)에 의존하지 않고 획수만 세면 字를 찾을 수 있다.
- 漢字 실력이 짧은 젊은층, 특히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玉篇이다.
- 45,000字를 수록, 국내 최대 玉篇으로 日本語를 수록한 韓·漢·日辭典이다.
- 中國本土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자를 수록,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時代的인 玉篇이다.
-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의거하여 편집하였다.

■監修 車柱環 ■체제: 국판(153mm×215mm) / 총 1,600여 쪽 / 최고급미색블루 명지/금박 2 색도

- 문학박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수
- 대한민국 학술원 정회원

●정가 54,000원  
호화장정·케이스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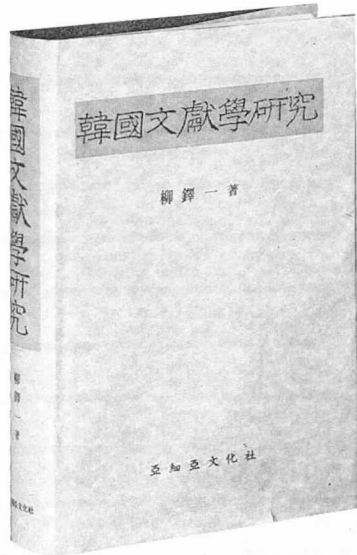
의해 자생적으로 출판된 것이기 때문에 간행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제한이 흔히 따르게 마련입니다. 분량을 줄인다든가 수요자의 성향을 의식해서 삭제나 부연이 가해지는 등으로 많은 문헌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컨대, 서울의 京板방각본이 비교적 품격이 높고 짜임새도 좋은 반면 전주의 完板방각본은 보다 口語的이며 열거와 반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는 해당지역 독자층의 지적 수준과 취향에 일정한 편차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문헌은 필사자나 印刷者의 기호나 심리, 당대사회의 시대적 요구 등에 의해서거나, 혹은 重刊이나 改刊, 補刻 등에 따라, 그리고 동일판본이 寫本, 목판본, 활자본으로 전승되면서도 여러가지 변화를 일으킨다. 또, 공간적 이동에 따른 변용의 양상도 결코 적지 않은데, 이는 변화·전승론적 접근을 통해 가장 잘 포착된다. 특히, 柳교수는 전승과정에서 문헌이 입는 ‘전승의 상흔’을 병리학의 방법론으로 살피되 그 상흔의 실제양상과 病因을 두루 밝혀내는 미덕을 보이고 있어 큰 시사를 던진다. 「剪燈新話」나 「朱子文集」의 한국적 수용과정에서 일어나는 문헌변화의 실상을 고찰한 것 등은 그 좋은 보기가 된다.

#### 「의유당관복유람일기」의 작자

나아가 문헌학은 그같은 전승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 때문에 그 진위와 시비를 판정해야 할 경우가 발생됨으로써 고증학적 방법론을 또한 요구한다. 柳교수는 이를 고핵·실증론적 접근이라고 명명하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의유당관복유람일기」의 작자가 종래의 통설처럼 延安金氏가 아니라 宜寧南氏라는 점을 밝혀낸 예에서 보듯 이 고핵·실증론적 접근은 柳교수의 특유의 부분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이같이 다양한 방법론의 성과를 토대로 한, 문헌학의 어쩌면 최종적이까 지 한 지향점을 柳교수는 원전비평론적 접근에서 구하고 있다.

“원전비평이란 한마디로 문헌의 원상회복이라고 규정될 수 있습니다. 혹은 원본에 가능한 한 가까운 본문의 탐색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요. 말하자면, 주어진 문헌의 진위를 판별하고 내력을 밝혀 그것을 그들 본래의 소속에 위치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柳교수에 의하면 이 원전비평은 다시 세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가 자료적 범주로서 문헌자료의 순수성과 정당성에 입각한 혈통적 계보설정이며, 둘째는 문헌의 순수

성과 정당성에 영향을 끼치는 작자(혹은 필사자, 각인자)의 심리상태를 고찰하는 심리적 범주, 셋째가 문헌을 생산케 한 시대배경을 객관적으로 고찰하는 역사적 범주가 된다. 술한 異本의 치밀한 비교고찰을 통해 「完板趙雄傳」 「完板春香傳」 「完板沈淸傳」 등의 각 이본간 친소관계와 계보를 세우고 그 원전비평적 의미를 밝혀낸 제6장의 논문들이 그같은 세가지 범주의 문헌비평적 접근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한편으로, 柳교수는 번역주석론적 관점의 논문을 이번 저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는데, 「韓國文獻註釋史序說」 등 기왕에 발표한 논문 2편이 있기는 하나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후일 보완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생략했다고 한다. 예컨대 이 번역주석론적 접근이 추가된다면 “이제 한국문헌학의 대강의 기둥들은 빠짐없이 세우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 필생의 목표는 ‘한국서적문화사’ 저술에

柳교수 스스로의 표현대로 “돈과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그러나 “세상에선 그다지 알아 주지 않는” 문헌학연구에 그가 입문하게 된 것은 대학시절부터. 더 거슬러올라가자면 그의 全州柳門의 가까운 조상들 중 주석학자가 적지 않았다는 혈연적 영향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본격적인 관심은 대학시절 영남일원의 世家와 古刹에 산재한 우리 고문헌을 조사하면서 품게 됐다. 부산대 도서관에서 3년간 사서로 근무하며 2만권에 이르는 古書를 분류했던 경험도 그의 연구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후 柳교수는 근30년에 걸쳐 “우리 학계에서 하나만이라도 해내야 할 기초작업”이란 사명감으로 한국문헌학연구 외길을 걸어왔는데, 그 첫번째 결실이 「完板坊刻小說의 문헌학적 연구」(1981)로, 그리고 두번째 결실이 이번의 「한국문헌학연구」로 맺어졌다.

그런 그가 세번째 결실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韓·中 및 韓·日 서적교류사를 포함한 가칭 「韓國書籍文化史」의 저술이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柳교수는 이미 중국의 24史를 모두 섭렵, 서적관계 기사들을 따로 모아놓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18년만에 독파했습니다. 1985년 4월30일 새벽2시였죠. 여기서 뽑아낸 서적관계 자료만 해도 대학노트로 수십권이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과 그간의 문헌학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명실상부한 한국의 서적문화사가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나 柳교수는 자신의 당대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조급한 욕심은 부리지 않는다. “한 집안에 똑똑한 학자 한 사람이 나오려면 3대가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 그는 서울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는 첫째와 셋째, 그리고 국사학을 공부하는 둘째, 이들 아들 삼형제에 거는 기대를 굳이 감추지 않는다.

“네 부자가 모이면 그게 바로 세미나”가 되는 즐거움을 맛볼 겸해서 柳교수는 「한국문헌학연구」를 상재한 얼마 뒤 “외룡선생 상경하듯” 모처럼만에 서울을 다녀갔다.

—강철주기자

## 좋은 편집인을 만나십시오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 수강예약마감 : 0월 0일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 0월 0일

출판·잡지·사보·신문사 취업대비

엘리트 편집인 양성 교육기관

한국편집디자인센터

☎ 812-1715-6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한국편집디자인센터는 국내 출판·편집 산업과 엘리트 편집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전문편집인이 갖추어야 할 이론·실무 실습 위주의 교육과 출판·편집업계를 대상으로 취업추천, 출판분야 정보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번 본 센터에서는 정규반 수료생을 추천하고자 귀사에 일차 선별을 의뢰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취업 구인 의뢰 급증!

※ 전공이나 경력을 고려하시면 그에 따른 소양인을 추천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  
엘리트 편집인 양성 목표!!

본 센터의 수료생을 채용해주신  
출판사·잡지사 인사책임자에게  
감사 드립니다.

노랑진 전철역 맞은편

※ 취업인력 정보실 ☎ 814-3387